

학교보건 요원으로서의 국교교사들에 관한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역할인식 및 수행

전남의대잡지 제16권 제2호, 1979.

강혜영 · 변주나

학교보건위원으로서의 일선국민학교 교사들이 갖는 역할인식과 역할수행에 대한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교육과 교실환경관리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구학적 요인과 무관하게 비교적 주요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의 대부분(98% 이상)이들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보건계획수립에 대한 조언과 전염병증상에 대한 조기감별등과 같은 역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역할인식에 비해 역할수행이 비교적 부진하였고 계획수립에 대한 조언에 있어서는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층에서 역할인식과 수행이 긍정적이었으며 전염병증상에 대한 조기감별은 저학년층에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역할수행은 도시지역 남자교사층에서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3) 역할수행상 나타난 문제점들로는 관계정보나 지식부족, 시간부족 순이었으며 주로 농촌지역에서 경력이 적은 층에서 지적되는 경향이었고 특히 관계정보나 지식부족과 학교보건계획의 미비등은 고학년에서 주로 지적된 문제들이 있다.

전라남도 국민학교 양호교사의 학교보건업무에 관한 조사

대한간호 제17권 제6호, 1979.

강혜영 · 변주나

전라남도에 근무하고 있는 양호교사 212명중 1978년 8월 10일~11일 사이에 국립보건연구원 주관하에 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연례양호교사 연수 교육에 참석한 176명을 대상으로 학교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내 양호교사의 연령은 대부분 20~29세사이였으며(76.4%), 3년제 간호 교육을 받았고(74.5%), 임상 경험은 과반수 이상에서(64.8%) 전혀 없이 자의로(64.3%)

)학교 보건 업무를 선택하였으며 양호교사로서의 경력 년수는 평균 4.2년이였다.

2. 대상자의 근무지는 주로 읍, 면, 소재지였고(69.9%),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급수는 30학급 미만이 대부분으로(67.1%), 1,5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 학교가 과반수 이상(64.2%)이었으며, 교사수도 20~29명 군에서 과반수 이상(56.8%)을 차지하였다.

3.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건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으며(81.8%), 양호실을 따로 둔 학교는 대상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실태였고(44.3%) 이들 양호실의 크기도 학생수나($p < 0.05$)매일 다루는 응급처치 건수에($p < 0.05$)따라서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함을 나타내었다.

4. 학생들에 대한 건강 검사는 대부분 교의에 의해 년1회 정도로(87.7%) 실시되었고, 건강기록부는 주로 담임 교사가 기록하였으며(92.1%), 학교 보건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건강 교육은 과반수 이상에서 월 5회 미만정도로(53.4%) 매 회 교육시 참석 학생수는 60명 정도의 학급 단위로 하여(50.6%) 실시되었으며, 주로 외상(87.4%), 복통(71.6%), 두통(71.6%) 등의 응급처치를 매주 40건 이상 처리한 학교는 과반수 이상(52.3%)으로 나타나 양호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건강 교육 보다는 주로 양호실에서 응급 처치만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건강 검사 결과에 대한 추후 관리 현황을 보면 구강검사, 결핵검사 및 기생충을 위한 대변 검사에서 평균적으로 과반수 이상에서 학부모와(63.8%), 담임에게(51.4%)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생 상담을(48.9%)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학생들에게 실시한 건강 교육주제를 우선 순위별로 채점하여 보았을 때 개인의 청결을 위주로 한 개인 위생(2.03점), 구강위생(2.6점), 질병예방(3.36점) 순으로 개별적인 건강 습관에 필요한 주제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 휴식과 수면(6.48점), 성장발달(6.80점) 및 사회정서적 건강(7.42점) 등과 같이 한 집단과 더불어 학습 되어져야 할 주제들은 그 우선 순위가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이는 건강 교육이 학생수와는 무관하게 대부분의 학교에서 월10회 미만 정도(78.5%)로 실시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주제들을 교육 할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하겠다.

7. 양호교사들이 학교 보건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지적한 애로 사항으로는 시설 및 비품 부족(36.7%), 보건 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23.3%), 업무겸직(13.3%) 순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이나 동료 교사에게 대해서 학교 보건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 줄 것과(39.0%) 행정적인 지원(29.0%)을 희망하였으며 간호 교육기관이나 협회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에서(50.3%) 실제적인 건강 교육 자료를 제공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8. 학교보건 업무에 대한 자문은 상당수가(71.4%) 희망하였고 연수 교육에서는 실제적인 건강 교육 방법에 대해서(72.9%) 주로 교육시켜 줄 것을 희망하였다.

9. 실제적인 건강 교육을 받기 희망한 바를 임상 경험 유무에 따라 관련시켜 보았을

때 경험에 무관하게 ($p > 0.05$) 실제적인 건강 교육을 희망하였으며, 양호 교사로서의 근무 년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 < 0.05$)

10. 양호교사로서의 근무 년수와 직업 만족도와 의 상호 관계를 보면 오래 근무한 자가 불만족한 경향을 보이므로서 양호교사의 충원을 물론 사기 양양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본다.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교 학생의 월경 실태조사

적십자간호 제2권 제1호, 1979.

고 영 애

월경은 단순한 생리학적 현상이라기 보다 성숙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사춘기의 지표가 되며 여자에게는 성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사춘기 연령이 점점 낮아져 가고 있으며 국민학교 연령층이 성교육실시에 적절한 시기이다. 이에 이들의 생리실태를 파악하여 성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1978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내에 소재해 있는 4개 공립 국민학교 6학년 여학생 9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경 실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월경경험율은 16.1% 였다.
2. 월경시작시기는 대부분이 6학년 2학기 부터였다.
3. 월경경험전 월경에 대한 지식정도는 남녀 공학반이나 여자만으로 구성된 반이나 유의한 차이 없이 87.4% 가 갖고 있었으며 지식이 없는 것은 11.9% 였다. 지식이 있는 경우 이에대한 제공자는 어머니가 여자반에서는 18.5%, 남녀공학반에서는 29.5%, 선생님이 여자반에서는 53.7%, 남녀공학반에서는 25.6% 로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p > 0.05$)
4. 첫 월경시 느낌은 여자반에서나 남녀공학 반에서나 유의한 차이없이 부정적 반응이 77.5%, 긍정적 반응이 32.5% 였다. 부정적 반응의 내용에서는 걱정스러움이 43.6% 였으며 놀라고 겁난 경우가 23.5% 였다.
5. 현재 월경시의 반응은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없이 부정적 반응이 63.6%, 긍정적 반응이 32.5% 였으며 부정적 반응의 경우 걱정스러움이 37.5%, 짜증스러움이 27.1%, 우울하다가 20.8% 였다.
6.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 없이 월경시에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은 80.8% 였고 증상이 없는 것은 15.9% 였으며 평균 증상수는 2.1였다.
7. 월경지속기간은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없이 5~6일이 33.8%, 3~4일이 33.1%, 6일 및 그 이상이 7.9%, 1~2일이 7.9% 순이었다.